

판타지 덕후가 재현한 신들의 황금주, '꿀술'을 아시나요?

(黃金酒)

스타트업 '곰 세마리'의 야심작

판타지 속 벌꿀술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
계속된 시행착오 끝 3년 만에 최고 결과물
유명 셰프들도 인정...해산물과 궁합 좋아
유용곤 대표 "진해 벚꽃향 담은 꿀술 도전"

서구 파인 다이닝의 시각으로 우리 식재료를 재해석해 화제를 모은 조셉 리저우드 셰프. 4월 서울 한남동 라키니에서 진행했던 그의 테이스팅 행사에서 요리 못지않게 관심을 끈 것이 있었다. 이날 음식과 페어링된 열은 황금빛의 술. 아이스 와인을 연상시키는 가는 병에 귀여운 곰이 그려진 낫선 라벨. 언뜻 화이트 와인을 연상시켰지만 맛은 달랐다. 깔끔한 단맛과 함께 은은하게 입안을 감도는 친숙한 향. 색다른 풍미에 놀라는 기자를 보고 테이스팅 진행자가 설명을 해주었다. "꿀로 만든 술이에요."

'곰 세 마리'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총 직원 3명의 스타트업(start-up)이 만든 100% 국내산 술이다. 포도주보다도 역사가 더 길다는 '인류 최초의 술'로 불리는 꿀술(미드·mead)을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아직 재학 중인, 디자인 전공의 젊은이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만들고 있었다. 첫 만남의 강렬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서울 신림동에 있는 그들의 사무실 겸 양조장을 찾았다.

●판타지소설, 게임 마니아의 정원에서 시작

'곰 세 마리'의 술은 우연히 맛을 보거나 알음알음 소문 듣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만 소량 공급하고, 인터넷 판매도 이제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유명 오너셰프들 사이에 이들의 꿀술은 제법 인기가 높다. 앞서 소개한 조셉 리저우드 셰프 외에 이찬오 셰프의 '사누', 강민구 셰프의 '밍글스', 김봉수 셰프의 '21세기 서울'과 '안씨 막걸리', 진성복 셰프의 '올리엔로렌스' 등에서 '곰 세마리'의 꿀술을 내놓고 있다.

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꿀술 사업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외국술의 범람 속



미더리(meader: 꿀술 양조장) 스타트업 '곰 세 마리'의 공동대표 유용곤(왼쪽) 씨와 양유미씨. 창립멤버인 유용곤씨가 제조를 맡고, 양 대표는 홍보 및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 신림동에 있는 '곰 세 마리'의 양조시설에서 병입과 라벨링을 마친 꿀술을 확인하는 유용곤 대표. 독학으로 익힌 양조기술로 상품용 꿀술을 완성하기까지 5년의 시간이 걸렸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에서 우리 술의 가치를 높여야 도전에 나섰다'라는 멋진 출사표가 있을 것 같았지만 창업멤버이자 공동대표인 유용곤씨의 설명은 환상을 깬다. "처음에는 정말 장난삼아 만들었다. 평소 자취방에 게임, 판타지소설 좋아하는 디자인과 동기가 자주 모였는데, 2011년 좀 '베어울프'나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꿀술을 한번 만들어보고 호기심에 일을 벌인 게 발단이 됐다."

마침 자취방 동거들 중 유년시절 이탈리아에 살면서 꿀술 제조에 참여했던 '귀한 경험'을 가진 친구도 있었다. 50만원 정도를 투자해 꿀을 비롯해 유리 카보이(액체보관용 원통), 비즈계, 온도계 등을 구입해 술 제조에 들어갔다. 유용곤 대표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한국 드라마에 폭 빠진 노르웨이 대학생이 한번도 맛본 적 없는 막걸리를 만드는 상황"이었다. 인터넷을 뒤져 각종 자료를 찾고, 도서관에서 양조학·발효학 서적과 관련 논문을 빌려 공부하고, 계속 시행착오를 겪

으면서 차츰 소설과 드라마로만 접하던 꿀술의 실체에 다가갔다. "2014년 들어 우리가 '전설의 미드'라고 부르는 만화할 결과물이 나왔다. 그때부터 사업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들었는데, 이후 호기심으로 벌인 크라우드 펀딩에서 700만원 목표에 2000만원이 모이면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 유채, 진해 벚꽃 향기 담긴 꿀술 도전

현재 '곰 세 마리'는 집화꿀을 기본 베이스로 당도와 산미에 따라 오리지널(11.4도)과 스위트(9.45도) 두 가지를 제조하고 있다. 다른 발효주에 비해 꿀술의 제조과정 자체는 그리 복잡하지 않다. 하지만 작은 차이에도 맛이 달라질 정도로 재료부터 공정까지 변화에 무척 예민해 섬세한 손길과 감각이 필요하다.

양유미 공동대표는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는 첨가물에도 향미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다른 술

에는 보존을 위해 들어가는 첨가물도 넣을 수가 없다"며 "통상 100리터의 술을 만들려면 꿀이 40kg 이상 필요해 재료수급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곰 세 마리'의 꿀술을 운영하는 레스토랑들은 특히 해산물과의 마리아주(술과 음식과의 궁합)를 높게 평가한다. 식전주로도 내놓기 좋다. '곰 세 마리'측은 은근한 단맛과 바디감이 제법 있는 특성을 살려 요즘 인기인 디저트 카페의 톨칭도 생각하고 있다. 조금씩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이제 매출이나 수익에 신경을 쓸 때도 됐지만, 여전히 이들은 장사보다는 새로운 맛의 꿀술 개발에 더 깊고 열정적이다.

"어느 꽃이나에 따라 꿀은 미묘하게 향미가 달라진다. 그동안은 집화꿀을 기본으로 만들었지만 앞으로 진해의 벚꽃, 제주의 유채꽃 등 지역의 향기를 머금은 꿀술을 만들기 위해 지금 계속 실험해보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 '꿀술'이란

히니와인(honey wine)이라고도 한다. 쌀 보리 등의 곡물로 만든 술이나 포도주보다도 더 오래된 선사시대부터 즐긴 인류 최초의 술이라고 알려져 있다. 신혼을 뜻하는 히니문(honeymoon)도 결혼식 이후 보름간 벌꿀술을 마신 것에서 유래했다고 알려져 있다. 판타지 소설부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까지 다양한 작품의 단골 소재인 북극신화 속 바이올프와 천둥의 신 토르가 발할라에서 마셨다는 술도 꿀술이다. 고대에는 벌통에서 꿀이 천연효모에 의해 자연발효된 것을 채집해 마셨다. 요즘은 벌꿀에 2~4배 정도가 되는 물을 넣어 살균한 다음, 효모를 섞어 2~4개월 이상 두고 발효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제조법에 따라 단맛이 나는 것에서부터 발포성의 것까지 여러 가지가 만들 수 있다. 김재범 기자

영화·콘서트 보러갈까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자는 말이 없다' (24일 개봉 | 감독 요아킴 뢰닝, 에스펜 잔드베르크 | 출연 조니 뎀, 허비에르 바르뎀 | 129분 | 12세) 살아생전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해적 수천 명을 멸망하며 잔혹함을 드러내던 살라자르(허비에르 바르뎀)는 과거 잭 스페로우(조니 뎀)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균형 '사일런트 메리' 호와 함께 죽은 자들의 영역에 가라앉았다. 그런 그가 어떤 이유로 물 아래서 눈을 뜨고, 유령선이 된 '사일런트 메리' 호와 선원들을 이끌고 바다 위에 등장한다. 잭 스페로우에게 당한 대로 되갚아 주겠다는 복수심으로 들끓는 그는 모든 바다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추격을 시작한다.

●제11회 서울재즈 페스티벌 2017 (27·28일 낮 12시~오후 10시30분) | 서울 올림픽공원 | 전체



재즈 음악 위주로 진행되는 불철 대표적인 야외 음악페스티벌. 타워 오브 파워, 혼네, 세실 맥로린 살반트, 지용, 에픽하이, 넬, 루시드 폴, 스탠리 클라, 두 번 째달, 다얀 리브스, 고상지, 바우터 하펠, 10cm, 스탠딩에그, 마마스 건 등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이틀간 아늑한 음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올해는 특히 아티스트 간 컬래버레이션 구성이 많다. 재즈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윤석철 트리오와 백예린의 협업, 에픽하이와 넬, 정승환과 샘김도 합동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2일권 정가 23만원, 1일권 정가 14만5000원. 문의 02-563-0595.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강하면서 여린 옥주현표 프랜체스카 '심쿵'

양형모의 아이러브 스테이지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

심플한 로즈먼 다리...무대의 진수 1막보다는 2막이 인상적인 뮤지컬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보고 나온 평론가와 선배 기자의 평가가 상반된 것이 흥미로웠다. 한 평론가는 "상당히 불만했다"라며 극 중 명대사를 줄줄 읊은 반면, 다른 한 평론가는 "지루해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관객들의 반응도 갈렸다. "1막은 지루했지만 2막은 매우 인상적이었다"라는 절충안(?)도 있었다. 그 경계선에는 '불륜의 아름다운 포장'이라는 시선이 존재하고 있다. 그 선 위에 서서 어느 쪽으로 한 발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이 작품을 대하는 개인적 가치와 무게감이 달라진다.

현실은 현실이고 예술은 예술이라는 생각이 있다. 가정이 있는 여인이 바람을 잔뜩 피우다가 막판 5분을 남기고 느닷없이 눈물을 펄펄 쏟으며 남편에게 돌아가 용서를 비는 것으로 마무리되면, 1980년대의 대량생산형 성인영화가 떠오른다. 당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대요"식의 '디즈니적인' 결말이 아니면 상연허가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최피아프와 날선 회갑에 면죄부를 부여한 조폭영화들은 또 어떠한가. 뮤지컬은 뮤지컬이고 불륜은 불륜이다.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개막 초기부터 "무대가 예쁘다"라는 소리를 들은 작품이다. 배경이 되는 로즈먼 다리를 어떻게 구현했을까 궁금했는데, 과연 심플하고 효율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아름다웠다. 하루의 변화를 색감의 미묘한 조절로 표현한 조명도 좋았다. 오필영(무대디자인)과 이우형(조명디자인), 두 명장의 솜씨다.

로버트를 집으로 초대한 프랜체스카가 분홍색 드레스를 꺼내 입고 나오는 장면이 참 좋다. 이 장면에서 배우 김현숙은 "분홍색 드레스는



로즈먼 다리에서 프랜체스카(옥주현 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는 사진작가 로버트(박은태 분). 불륜을 미화했다는 불편한 시선도 있지만,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두 사람의 사랑을 지극히 아름답고 서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사진제공 | 프랜체스카

프랜체스카에게 웨딩드레스와 같은 의미가 아니었을까"라고 질문했다. 동감이다. 애잔하고 풋등이 시큰했다.

프랜체스카를 맡은 옥주현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라는 느낌이 든다. 좋은 점도,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 옥주현이 잘 표현하는 여인상은 강한 쪽이다. 적에게, 권위에, 음모와 멸시에, 탄압에 맞서 꾀스스하게 버티며 자아를 찾아 성장해 나가는 캐릭터는 옥주현만한 배우 찾기가 쉽지 않다. 엘리자벳, 마타하리, 위키드, 루돌프에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프랜체스카도 그랬다. 로버트와 도피할 것이냐, 가족으로 회귀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선 프랜체스카. 사랑이나 주어진 삶에 대한 충실함이나, 여기에 옥주현은 '운명의 개척'이라는 제3의 길을 하나 더 보여준다. 그래서 강하면

서도 여린, 자유로우면서도 자유롭지 않을 역시 사랑하는 프랜체스카가 탄생했다. 개인적으로는 '아름'보다는 '슬픔'에 한 발 더 다가간 프랜체스카였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여하튼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프랜체스카', '요리하는 옥주현'은 굉장한 매력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박은태는 확실히 '사랑' 쪽이다. 멋진 남자다. '애매함으로 둘러싸인 이 우주에서, 이런 확실한 감정은 단 한 번만 오는 거예요'라는 오글오글 대사로 박은태가 하니 짜릿하다.

내 감상은 이렇다. 1막은 살짝 졸아도 좋다. 하지만 2막에서는 눈 크게 뜨고 집중하자. 프랜체스카와 로버트가 눈빛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의 느낌은 통통뽀뽀처럼 유희기한이 길다. 이런 건 다섯 번쯤 보아도 좋다. ranbi@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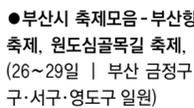
책 읽는 주말

●살아요-단 하루도 쉽지 않았지만 (케리 이건저·이나경 옮김 | 부키)



수술 중 투여받은 진통제의 후유증으로 얻은 정신병.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있던 저자는 호스피스에서 열하게 된다. 온몸에 암이 퍼진 할머니, 대학 입학식 다음날 총기사고로 반신불수가 된 청년, 뇌졸중으로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된 남자. 환자들은 각자 삶의 끝에서 후회와 아쉬움, 깨달음 그리고 놀랍게도 삶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저자 케리 이건저는 치유 받은 자신을 발견하고, 이들과 함께 한 시간을 13개의 이야기로 엮어 독자들에게 내민다. 평범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위인들의 명언보다 강력한 인생의 통찰이 담겨 있다. 양형모 기자

●부산시 축제모음 - 부산항축제, 해운대 모래축제, 원도심골목길 축제, 금정산성 역사축제 (26~29일 | 부산 금정구·동구·해운대구·중구·서구·영도구 일원)



부산에서는 26일부터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가 일제히 시작한다. 금정구에서는 국내 1호 민속주인 금정산성 막걸리를 테마로 한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가 열리고, 동구에서는 세계 5대 향만으로 꼽히는 부산항을 알리는 향만 축제를 진행한다. 해운대구에서는 세계 유일의 모래를 소재로 한 친환경 테마 축제 '해운대 모래축제'를 연다. 또한 최근 인기가 높아진 원도심을 중심으로 '40계단 골목길', '168계단', '흰여울 마을' 등의 투어 프로그램이 있는 '원도심 골목길 축제'도 진행한다. 26일 일제히 시작하지만 각 축제마다 종료일은 다르다.